

기후위기 시대,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의 교류·협력 필요

☎ 김종혁 기자 | ⌚ 승인 2023.10.26 17:11

26일 '2023 전국환경교육포럼'·'제10회 충북환경교육한마당' 동시 개최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는 26일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와우' 일원에서 '2023 전국환경교육포럼'·'제10회 충북환경교육한마당'을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기후위기 시대, 미래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충북 청주에서 마련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는 26일 충북 교육청 환경교육센터‘와우’ 일원에서 ‘2023 전국환경교육포럼’·제10회 충북환경교육한마당’을 동시에 개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으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환경동아리 활동사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환경교육, 현실적 해법찾기’를 주제로 환경교육포럼이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한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의 도전과 변화’라는 강의에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아(대전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오창길(자연의벗연구소 소장), 염 우(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장미정(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연구소 소장), 정병준(맹산환경생태학습원 원장), 정호선(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장), 조성화(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관장),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최병조(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9명의 환경교육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정토론을 가졌다.

지정토론 후 종합토론에서는 2024년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환경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2023 전국환경교육포럼’ 지정토론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날 행사가 진행된 '와우' 일원에서는 다양한 환경체험부스가 마련돼 참여자들의 흥미를 이끌기도 했다.

충북환경교육한마당은 2013년부터 충북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매년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해 온 환경교육 민관협력사업이다. 전국환경교육포럼은 2019년부터 충북을 중심으로 5년째 개최해 온 전국적 환경교육행사이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두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이 나아갈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혁 기자